루마니아 선교편지

2021. 6. 24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었으며,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소식 올립니다.

♣ 이곳 상황과 감사한 일

지속되어온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끝이 보입니다. 백신주사의 확대로 감염자수가 줄어들고 있고, **5월 말부터는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몇 가지 제한이 남아 있지만 많은 감염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상황 가운데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내 모임이 금지될 때에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에서는 실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아라치 교회** 어린이 제자훈련도 가정집 마당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모일 수 있었습니다. 뜨르너베니 교회의 안수집사 알베르트는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기도 했지만 나음을 입었고, 파네 전도사와 다른 성도들도 감염이 있었으며 펠디와라 교회에도 두 차례의 감염이 있었지만 감염을 피하기 위해 주의하는 가운데 **예배를 중단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실내에서 감염을 피하기 위한 기준을 지키며 모임을 갖고 있지만 **지나온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 펠디와라 교회

그동안 실내활동의 제약이 있어 전도와 심방이 쉽지 않았는데 **본격**

적으로 실외를 중심으로 전도와 심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작은 공간에 많은 수가 모이기에 지병이 있는 성도들은 감염을 두려워하여 예배에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이 기간에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 각자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었으며 믿음으로 더욱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엔 결석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이젠 날씨가 따뜻해져 교회 마당에서 실외모임도 가질 수 있기에 전도와 양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뜨르너베니 교회

코로나로 인해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자 두려움에 주님께 돌아와 신앙을 갖게 된 집시들이 오히려 늘면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비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일인용 의자에 두 명이 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건물 위에 한 층을 올려 예배 공간을 확보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시들의 교회이지만 힘닿는 대로 헌금을 하고, 또한 건축공사 일은 건축에 종사하는 성도들 위주로 봉사하여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생명의 복음이 늘 증거되는 귀한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집중하여야 할 주일학교 사역

유럽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가치관에 점점 마음을 뺏긴 '다음 세대'의 영적 환경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임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주일학교 사역에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함을 절감합니다. **펠디와라 교회 주일학교**의 경우 소수의 청소년 위주로 제자훈련을 해왔지만, 공식적인 주일학교 모임은 이룰 수 없었기에

주일학교 모임이 약해졌는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매주 토요일 주일학교 전체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라치 교회의 주일학교**는 매주 제자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라치 교회의 주일학교 전체모임은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일 수 없기에 **당분간 제자훈련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약해진 **브라쇼브 지역 교회들의 주일학교 사역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깨어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 가족 소식 및 기도 제목

예진이가 6월 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언니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의 대학교**에 장학혜택을 받고 진학하길 희망해왔는데 이를 위해서 요청된 비자를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어 **약 2년을 기다려야 대학을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진이는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취업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펠디와라 교회와 뜨르너베니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2. 아라치 교회와 브라쇼브 지역 주일학교 사역에 성령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3. 지도자 기도모임의 목회자들 각자가 믿음의 기도자로 서며,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루마니아 배만주. 이명자 선교사 (수진,경진,예진) 드림

후원 계좌: 외환은행 010-04-06389-596(GMS배만주) LG폰 070 8625-7488